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1. 31(금) 총 4매	
담당 부서	공공주택총괄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병훈, 서기관 김종오, 주무관 민현식 • ☎ (044) 201-4539, 4514, 4578	
	공공주택지원과	담 당 자	• 과장 최아름, 사무관 박선영, 광인영, 서형우 • ☎ (044) 201-4530, 4531, 4479, 4533	
보 도 일 시		2020년 2월 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2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‘19년 공공임대주택 13.9만 호 공급, 계획보다 3천여 호 초과달성 **- 청년 2.85만 호, 신혼부부 4.4만 호 등 계층별로 맞춤형 공급 -**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019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집계한 결과, 「주거복지로드맵」(‘17.11월) 및 「신혼부부·청년 주거지원방안」(‘18.7월)에 따른 ‘19년도 목표치 13.6만 호 보다 3천여 호 더 많은 13.9만 호를 공급(준공 기준)했다고 밝혔다.
- 계층별로 살펴보면, 청년층에게 2.85만 호, 신혼부부에게 4.4만 호, 고령자에게 0.95만 호, 일반 취약계층에게 5.7만 호를 공급하여 「주거복지로드맵」 등에 따른 수요 계층별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.



- (청년) 서울 개봉동에 첫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사근동·연지동·구의동 등에 총 8개소(1,016호)를 공급하여 대학생이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으며, 젊은 창업가·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(광주첨단, 100호) 등 총 2.85만 호를 공급하여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였다.
- (신혼부부) 지원대상과 지원주택 유형을 확대*한 신혼부부 매입·전세임대 II유형을 신설하여 최초 공급(0.9만 호)하고, 신혼특화 행복주택 단지(성남고등, 524호) 등을 조성하여 총 4.4만 호를 공급하였다. 또한,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시설 10개소도 공급하였다.

* 소득 70% → 100%(맞벌이 120%) 이하, (유형) 연립·다세대 등 → 아파트 포함

- (고령자) 사회복지관과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을 복합건설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(6곳*), 동작감지센서 등 고령자 편의시설을 보강한 공공리모델링 매입 임대주택 등 총 0.95만 호를 공급하였다.

* 세종신흥(80호), 부안봉덕(80호), 안동운흥(150호), 수원광교(152호), 보은이평(100호), 웅진백령(72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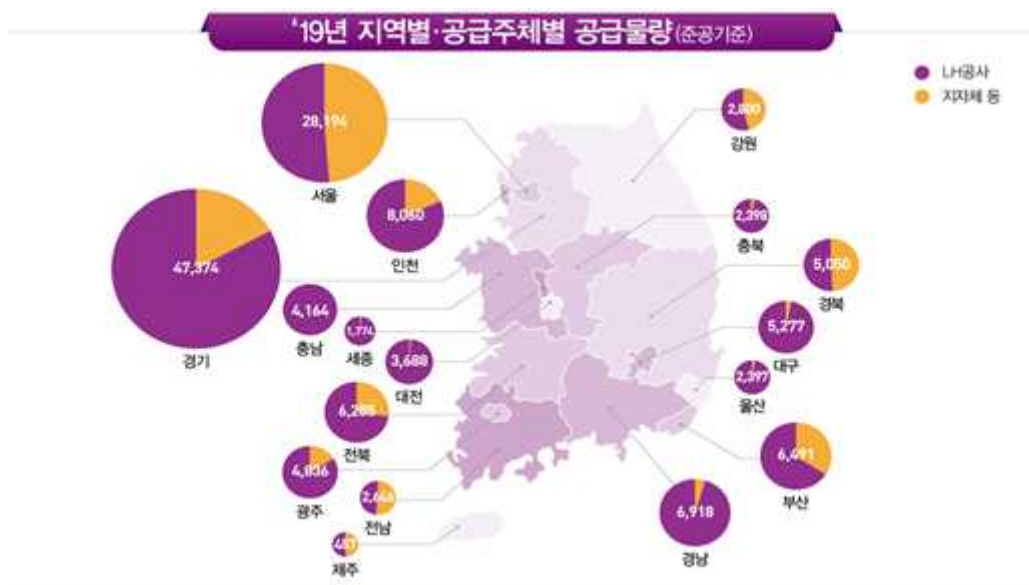
- (일반 취약계층) 쪽방·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·전세임대를 우선 지원(0.4만 호)하고, 지난해 6월부터 보증금 부담 완화제도를 시행하여 보증금 면제 또는 절반이하의 금액으로 입주(0.2만 호)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총 5.7만 호를 공급하였다.

□ 유형별로 살펴보면, 건설임대주택이 6.0만 호(준공 기준),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3.1만 호,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.8만 호 공급되었다.

-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행복주택 2.4만 호, 국민임대주택 0.85만 호, 영구임대주택 0.25만 호 등이 준공되었으며, 교통과 주거여건이 양호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임대는 전년 공급량보다 약 1.2만 호 많은 3.1만 호를 공급하였다.



- 지역별로 살펴보면, 서울·경기 등 수도권은 8.4만 호로 전체 공급물량의 약 60%를 차지하고, 경남·전북 등 지방권은 5.5만 호로 전체 물량의 약 40%를 공급하였다. 공급실적 순으로 보면, 경기도가 4.7만 호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였으며, 다음은 서울 2.8만 호, 인천 0.8만 호, 경남 0.7만 호 순이었다.
- 공급주체별로는 LH공사가 10.5만 호로 총 물량의 약 75%를 공급하였고, 지자체(지방공사)·민간은 나머지 3.4만 호(약 25%)를 공급하였다. 지역별로 보면 서울(1.3만 호), 경기도(0.9만 호), 부산(0.2만 호), 경북(0.2만 호) 순으로 지자체·민간의 공급실적이 많았다.



□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“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‘2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년도 목표치(13.6만 호)보다 5천 호 많은 14.1만 호를 목표로 하고, ‘22년까지 총 70.2만 호(‘18~’22년)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○ 이에 따라, 지난 주거복지로드맵(‘17.11월) 수립 당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.3%(‘16년 기준)에 불과했지만, 로드맵에 따라 42.8만 호(‘18~’20년 누적물량)가 공급완료되는 올해 말에는 OECD 평균인 8%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.

*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‘16년 6.3% → ‘17년 6.7% → ‘18년 7.1%



□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자체(지방공사)와 긴밀히 협의하여 임대주택 공급가능대상부지를 발굴해 나가고,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자체(지방공사)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김종오 서기관(☎ 044-201-4514) 및 공공주택지원과 박선영 사무관(☎ 044-201-453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